

# 시중은행, 3분기 채권만기 17兆... 차환 발행 서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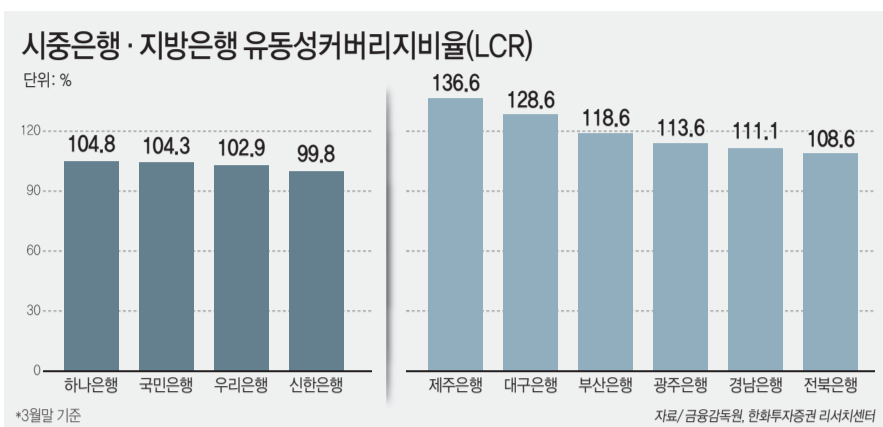
연말 '금리역전폭 확대' 부담 가중  
예대율 상승에 예수금 확보 부담 ↓  
낮은금리 자금조달 '채권발행' 증가

국내 은행들이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8월에 7조4000억원 규모의 은행채 만기를 포함해 남은 3분기에 17조원 규모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고유동성 자산 확보를 위한 은행채 발행 유인이 있다. 예대율규제가 오는 2020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예수금보다 채권 발행유인이 커진 것.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대신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영업에 나선데 따른 자금 수요도 있다.

16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8월 은행채 만기는 약 7조4100억원 규모다.

남은 9월(만기 9조5000억원)까지 확대하면 남은 2개월 동안 16조9100억원의 빚



을 상환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두 달 동안 1조4200억원(8월 7000억원·9월 7200억원)의 빚을 상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1조 1100억원(8월 3500억원·9월 76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9500억원(8월 2500억원·9월 7200억원), 4600억원(9월 4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여건이 좋을 때 미리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본다.

최근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금리역전폭 확대'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쟁적으로 돈을 풀던 세계 주요국이 내년에 잇따라 '돈줄 죄기(통화 긴축)'에 나선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

적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가산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발행이 늘고 있는 조건부차본증권(Tier1코코본드)의 가산금리는 낮아졌으나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금리는 높아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지난 4월 발행한 5년 콜옵선부 조건부차본증권의 발행금리는 4.0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3.77%에 비해 절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자금조달 구조상 비용을 40bp(1bp=0.01%포인트) 가량 절감할 여지도 생겼다. 예대율 적용시기가 올해 7월에서 2020년 이후로 1년 반 연기 됐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대율 상승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예수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면서 "은행채 발행이 유리해지면서 6월 이후 은행채 발행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바젤III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지키기 위한 은행채 발행 유인도 있다.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 LCR은 대부분 100%를 웃돈다. 하지만 특판 경쟁으로 그 비율이 하락한 곳이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최근 특판예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신기반이 약한 몇몇 은행은 예수금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LCR도 하락했다"고 말했다.

LCR규제 수준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되면서 고유동성자산을 확보하려는 은행들도 생겨나고 있다.

B은행 자금조달 담당 임원은 "채권만기에 따른 차환과 자회사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금리인상 이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채권발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통화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및 변동성 확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진행된 '신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서약식'에서 위성호 신한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서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 '전 직원' 서약식

신한은행은 16일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서약식을 위성호 은행장과 직원들이 본점 영업부에서 가졌다.

'신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 프로세스를 새로 정립해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종사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이해하기 쉬운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상품서 제공 등 영업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 공시 및 광고 ▲민원(분쟁) 처리 ▲고객정보 보호 등 영업단계별로 지켜야 할 기준을 담아 더욱 실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윤리준칙 준수여부 점검 절차 및 유사행위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통해 새롭게 규정한 준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기적인 서약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원칙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NH농협생명 무배당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 출시

NH농협생명은 16일 NH온라인플러스저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20~40대 고객만을 위한 온라인보험 전용 상품으로 보험 가입 후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환급을 보장한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만기시점에 '만기유지보너스'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이 상품은 고객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험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경제상황에 여유가 있을 때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에서 중도인출 할 수도 있다.

가입나이는 만19세부터 49세까지, 월



보험료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다. 가입은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하다.

한편 NH농협생명은 온라인저축보험의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0일까지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커피 쿠폰의 행운을 제공한다.

/김희주 기자 hj89@

## 예금 금리는 짝퉁, 대출금리는 쟁쟁

# 국내은행 상반기 이자이익 20兆 육박

금감원 "전년 동기비 9.5% 증가"

운용자산 증가로 순이자마진도 ↑

국내 은행들의 상반기 이자이익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고, 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탓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한 가운데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했다.

이자수익자산(평잔)은 작년 상반기 1985조9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104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게 늘었다.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 순이자마진(NIM) 역시 1.67%로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개선됐다. 늘어난 이자이익에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4000억원으

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이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실적이 악화됐다.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일회성 주식매각이익의 효과가 소멸됐고, IFRS9이 시행되면서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감소폭이 커졌다.

이와 함께 작년 상반기에는 외화순부채 상황에서 환율이 크게 하락해 외환·파생관련이익이 증가한 반면 올하는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줄었다.

대손비용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 줄었다.

국내은행의 상반기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9%,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9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2%포인트, 0.1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영업실적 개선에 당기순이익보다 자산과 자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KEB하나은행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피트IN' 선포

KEB하나은행은 16일 스타트업(Start-Up) 등 벤처 생태계의 육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업 문화 구현을 지원하고자 대화형 모바일 플랫폼 '피트IN'을 출시했다.

'피트IN'은 '사업'과 '아이디어'에 대해 벤처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참여자 중심의 모바일 플랫폼이다.

중소·벤처·스타트업 창업자와 법률자문, 투자자 등의 참여자들이 사업, 기술, 혁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문제해결과 사업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지원한다.

KEB하나은행은 '피트IN' 출시로 ▲사업과 아이디어 공유 및 평가 ▲특정 주제나 기술 관련 토론 ▲참여자 네트워크 형

성 및 대화 참여 ▲필요 콘텐츠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참여자들 간 소통을 확대하고 스타트업들의 초기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창업자는 창업자들로부터 위안을 얻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해 대화 위주의 참여형 플랫폼으로 구성함으로써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문제점 해결을 도와주는 차별화된 '생산적 금융'을 제공한다.

향후 '피트IN'은 KEB하나은행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운영을 맡으며 이를 통해 '오픈 액셀러레이팅(창업기업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 KB금융그룹-삼성전자

### 금융 특화 스마트폰

### '갤럭시 KB스타' 출시

KB금융그룹은 삼성전자와 제휴해 금융 특화 스마트폰인 '갤럭시 KB스타'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갤럭시 KB스타는 KB금융의 대표 앱과 금융서비스가 탑재된 고객 맞춤형 스마트폰이다. 은행과 증권, 손해보험, 카드, 생명, 캐피탈, 저축은행 등 7개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스마트폰에 KB전용 금융 서비스 공간인 'KB 스퀘어(Square)'가 탑재돼 자주 사용하는 계좌를 바로 볼 수 있는 계좌뷰, 킷 메뉴 등이 제공되며, KB금융의 이벤트나 최신 금융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안상미 기자